

금요 수필

불안 속에 피는 꽃

12월의 어느 날은 날씨만 따듯했다. 반팔 차림으로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이 낮선지 않았다. 이틀간 내린 비로 주변의 수량이 줄어들어, 날씨는 돌연 영하로 떨어져 밤새 눈이 내렸다. 제주에도 맑은 눈이 쌓였다. 계절의 변화를 감지 못하는 듯한 풍경이었다.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로 가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단풍 구경도 놓친 줄 알았는데, 11월 말 내장식을 찾았을 때 옷밖의 장면을 만났다. 산자락은 이미 겨울로 접어들어 늦게지만, 카르스 단층나무는 낙엽 하나 없이 은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계절의 질서에서 벗어난 듯한 풍경은 오히려 깊은 위상을 남겼다.

꽃이 피는 길, 차창에 스치는 석양을 보며 지난 2년을 돌아봤다. 병원과 약국을 오간 기억만 포렷했다. 세상사를 잊고서 부정은 했지만, 정작 남긴 것은 많지 않았다. 끊임없이 생각해 보니 그 부정 또한 나를 병들게 한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문득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탁속이 윙윙하던 화학방 담상 아래에 대나무 몇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대나무에서 희미한 노랗빛의



김윤균 수필가

꽃이 피어난 것을 보았다. 옥수수수염처럼 화려하지도 않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대나무에 꽃이 핀다는 사실도, 그것이 생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매화와 난초, 국화와 대나무처럼 신비의 상징이 된 식물들은 저마다의 전개를 지녔다. 쥐나무와 소나무, 가리나무 역시 많은 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생을 이어간다. 바위틈에서 자라는 소나무의 푸르름은 경이롭다. 가리나무는 촘촘한 나뭇잎 덕분에 바닷바람 제압에 쓰였고, 스트라니바리는 그 나무로 최고의 약기를 남겼다.

고난 속에서 생명은 오히려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꽃을 피운다. 위

기 앞에서 화려하게 생을 불태우는 현상은 기이하면서도 숭고하다.

소나무가 단단한 재목이 되기까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 강인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거북선이 소나무로 만들어져 화포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 또한 그러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역문학을 토로하기보다 백성을 위한 학문을 남겼고, 최준은 유배에서 '동이보급'을 완성했다. 역악과 고승 속에서 오히려 인류에 기여하는 꽃을 피운 것이다.

생물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항스트레스'라 하며, '불안 속에 피는 꽃'이라 부른다. 르네상스 또한 후

란 시대에 인간 정신의 꽃을 피워냈다. 우리 민족 역시 수많은 시련 속에서 희망과 연대의 힘으로 길을 찾아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고, 2007년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 때는 12만 명의 봉사자들이 간을 바다를 되살렸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고고한 대나무가 생의 끝에서 꽃을 피워 씨앗을 남기듯, 인고의 삶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잉태된다. 개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증명되었다. 불안 속에서 피어나는 꽃,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자태로 이어질 생명의 증거일 것이다.

*김윤균 수필가는 2016년 '대한문학' 신인상, 2022년 '수필과비평'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꽃밭정리수필문학, 수필과비평작가회의, 전국문인협회, 교원문화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큰샘수필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꽃밭정리수필문학상' 수상했다.

사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붉은 말의 해이다. 병오년(丙午年)은 60갑자 체계에서 43번째 해이며 병(丙)은 오행 중 불(火)을 상징한다.

오(午)는 십이지신(十二支神) 중 말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6년은 정열과 활력이 넘치는 '붉은 말'의 기운이 지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2026년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혁신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말띠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많으나, 급하고 성급한 행동은 충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띠는 끊임없이 달리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려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말띠의 장점은 쾌활하고 인기가 좋다. 명랑하며 재치가 있다. 현실적이며 사회성이 좋다. 성실하며 진취적이다. 정력적이며 강건하다. 기민하고 사교적이다. 열기가 넘친다.

단점은 자기중심적이고 화를 잘 낸다. 편협하며 사려가 깊지 못하다. 요구가 많으며 번드스럽다. 지구력이 부족하고 어린이에 같다. 조심성이 없으며 예측할 수 없다.

말띠 나이는 2026년 01세 병오(丙午)년, 2014년 13세 갑오(甲午)년, 2002년 25세 임오(壬午)년, 1990년 37세 경오(庚午)년, 1978년 49세 무오(戊午)년, 1966년 61세 병오(丙午)년, 1954년 73세 갑오(甲午)년, 1942년 85세 임오(壬午)년, 1930년 97세 경오(庚午)년, 1918년 109세 무오(戊午)년이다.

삼성 기술 유출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전직 삼성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인 A씨 등 5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교유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교유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삼성전자의 연구원이었던 B씨는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Han) 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이직했고, CXMT는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통해 확보했다.

B씨는 600가지 공정을 임직원 노트 12장에 직접 손으로 베껴 적어서 가지고 나갔다. 퇴사 전부터 CXMT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계획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CXMT는 이후 삼성전자 임직원

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본격적인 D램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CXMT는 SK하이닉스 출신 직원들이 다수 근무 중인 협력업체로부터 고가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 받는 대가로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술 유출 단서를 인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행의 전모를 밝힌 사례다. 검찰은 한국 기업의 핵심 산업 기술이 유출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의 2024년 매출액 감소만 5조원에 달한다.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추산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새해를 나의 것으로”



지난 12월 30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한 시민이 새해 상징 조형물 '2026' 글자 안에 앉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새해 파티용품, 골라 골라”



지난 12월 30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의 한 시장 상점에서 새해 전야 파티용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12)

왜들 이러는 거야!

박대우가 부디 부근과 동생들만은 봐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산으로 들어가 개항시 쪽으로 이동하자 곧 다들 뛰기 보였고 저 앞에 남준의 짐도 보였다.

박대우 일행은 각자 역할을 분담했는지 서너 사람의 울이져서 집집마다 수백해서 사람을 불러냈다.

“자,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이 죽창으로 추해버려! 데니카, 빨리 나와!”

박대우 일행 중에는 남준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박주성과 박창수도 끼어 있었다.

일행은 남준의 짐도 찾아가 강병도와 신봉대, 남준의 동생들도 끌어냈고 강응래의 집에서 강응래의 부인과 어머니, 두 어린 딸까지 불러냈다. 딸 큰애는 6살이었고, 작은애는 이제 막 걸음마를 났 정도였다. 강응래의 어린 딸과 마찬가지로 남

준의 어린 동생들도 집에 질러 올기 시작했다.

“왜들 이러는 거야!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고!”

강병도가 박대우에게 대들었는데 순간 일행 중 한 명이 몽둥이로 강병도의 머리를 후렷했다. 강병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신동택은 왜들 이러냐고 소리치며 강병도를 부축했다.

그걸 바라보는 남준은 도저히 그 때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달려 내려가 박대우에게 대들던지 사정을 하던지 해야 했다.

“안 돼!”

명하는 그런 남준의 필을 두 팔로 꼭 잡았다. 박대우 일행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게 아니라 강씨들과 그 친인척들만 불러냈는데 그대로 마을



주인 대대수가 포함되었고 거의 50명이 넘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가자들을 불러내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창고에 가뒀다.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길까?” 범행의 말에 남준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남준도 알 길이 없다. 다만 아무 일 없기를 바랄 뿐. 명하는 그 자리에 부엌을 끌고 앉았다. 두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우듯 천지신방에게 기도를 올렸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남준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다. 다음날 내려가 봐야 남준도 창고에 갇히는 꼴밖에 더 있었는가. 게다가 지금은 아무도 남준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군산과 전주가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다고 하지만 여기 고향은 아직 인민군과 좌익 세력의 울타리 이었다.

지금 세 아래에서 폐약을 저지르고 있는 박대우 일행은 인민군이 세운 세력이며 인정할 집안이다. 저들의 악행을 누가 막을 수 있었는가. 비명하는 쉬지 않고 두 손을 비비

고 고개까지 쓰러려 기도를 올렸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숲속으로 툭툭 들어왔고 아직까지 남아 있던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로 흩날렸다. 해는 기울어서 어둠이 숲속으로 점점 깊어지고 들어오고 있었다.

몇 시간째 기도를 드리던 경희도 내려가 봐야 남준도 창고에 갇히는 꼴밖에 더 있었는가. 게다가 지금은 아무도 남준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출재!”

남준은 무신한 말을 뱉으며 경희의 어깨에 팔을 얹어 있었다.

“메도 고를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저기 갇혀 있는 한들은 얼마나 부서울까 생각해 보면 차가운 바람도 매고픈 것도 그려졌어.”

“정말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남는 침실 이두워지고 거의 대부분 마을 사람들은 창고에 갇혔으므로 동네는 유령마을처럼 소수였으며 긴 쉼에는 부사히 집에 있는 사람들도 호롱불을 켜지 않아 더 울제너스럽고 침울했다.

창고 주변에 걸려 있는 호이등 불빛만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는데 온 마을이 호이등 아래에 쬐고서 하고 언더러 있었다.

박대우 일행 중 몇몇은 화선으로 돌아가 밥을 가져왔으며 일행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는데 박길리도 한잔씩은 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눈물없이 남매를 피우며 신격하게 된 기분을 느꼈다.

“정수하고 주성이한테 부탁을 좀 하면 안 될까?” 경희는 그냥 해보는 소리였다.